2008 국제학술회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 중국의 관점

리위쩐(李玉珍)
(연변대학교)

环黃海區域經濟合作：中國的視角

李玉珍(延邊大學經濟管理學院)

經濟全球化和區域經濟一体化的發展，促使國家和區域間的經濟、文化等領域的聯系空前緊密，東北亞地區內在的經濟發展變化，需要其走區域經濟一体化的道路，這是大勢所趨。在此背景下，貿易和生産要素的自由流動提出了新的要求，一种新型國家間經濟合作形式，也就是次區域經濟合作，正在深入和广泛的發展，环黃海區域經濟合作，作爲一种次區域經濟合作，將在東北亞經濟一体化的進程中做出應有的貢獻。

一、环黃海區域經濟合作的可能性

1．經濟全球化背景的支撐。隨着發達國家經濟体制的進一步自由化和發展中國家的對外開放，促使世界各國經濟体制趨同，進而消除了經濟全球化發展的制度障碍。實踐証明發展開放型的市場經濟是實現本國經濟与世界經濟對接，以謀求國內經濟繁榮和發展的必由之路。在這一過程中，國際投資、技術轉讓以及企業生産過程的全球配置、信息技術的發展等因素，都爲經濟全球化提供了最爲堅實的物質基础和技術支持。從理論上來講，任何一家有能力進行全球擴張的企業，其活動范圍都可以達到世界的任何地方，日新月异的信息技術与因特网的應用，也爲商品、信息和要素的全球快速流動提供了技術上的支持。

2．次區域經濟合作的优勢。次區域經濟合作是在經濟全球化和區域經濟一体化的背景下發展起來的一种新型的國家間經濟合作形式，主要指毗鄰國家間邊界兩側邊境地區的經濟合作現象。它利用邊境地區的區位优勢与生産要素互補的特点，變潛在的資源优勢爲經濟优勢，進而增强邊境地區的競爭优勢，促使其由邊緣區轉化爲核心區，實現經濟全面協調与可持續發展。次區域經濟合作要比區域經濟一体化有較低的“主權”成本，正是基于這个較低的主權成本，這一合作形式較容易開展，而且，次區域經濟合作具有功能外溢到區域經濟一体化的特点，能够推動更大范圍和更深層次的經濟一体化。

3．中日韓三國具有獨特的地緣优勢和互補性。東北亞國家擁有通向海洋的通道、互爲近鄰、歷史上交往密切、文化上融合，這些都是進一步發展經濟合作的有利條件。中

日韓三國經濟發展水平參差不齊，具有階梯型産業結构，卽日本的産業結构以資本和技術密集型爲主，同時以知識密集爲主要特征的高新技術産業也正在蓬勃發展，位于第一層次；韓國的産業以資本密集型爲主，技術密集型也具備一定的規模，其産業結构位于第二層次；中國作爲世界重要的原材料和裝備制造業基地，具有雄厚的工業基础，特別是近几年産業結构的調整和优化已經初見成效，屬第三層次。中日韓三國經濟發展的不平衡性，又使三國的相近城市在經濟上存在着垂直分工和水平分工交叉的依存關系，這爲环黃海區域經濟發展提供了合作的空間。

二、环黃海區域經濟合作的意義

1．邊界的屏蔽效應向中介效應轉化。一般意義而言，邊界是主權國家領土的分界線；在國際法中，邊界是用于“确定各國之間的領土范圍，它是一條划分一國領土与他國領土或与國家管轄范圍之外區域的界限”；從跨國區域經濟合作的角度看，它是兩个經濟地域單元的分界線。邊界效應是指邊界對于跨邊界經濟行爲的影響，從邊界的本質出發，邊界效應又可概括爲“邊界的屏蔽效應”和“邊界的中介效應”。邊界的屏蔽效應是邊界阻碍跨邊界交往和空間相互作用的一种現象，從經濟學角度將其概括爲交易成本的提高。例如，國家爲保護其經濟主權和發展民族工業，往往以關稅和非關稅貿易壁壘，在一定程度上限制貿易和生産要素的流動，這是邊界阻碍跨邊界交往和空間相互作用的一种現象。邊界的中介效應是指它具有彼此接触和交流的空間中介功能，通常是兩國間經濟、社會、文化等交流的中介面。人類本質上具有不斷拓展經濟行爲空間的需求，表現爲經濟交往空間范圍的拓展，對外部生産要素的獲取和市場范圍的擴張，尤其在經濟全球化和區域集團化的宏觀背景下，各國間經濟、文化、社會交往日益頻繁，邊界的中介效應就更加明顯。次區域經濟合作具有將邊界的屏蔽效應轉化爲邊界的中介效應的功能，邊界由屏蔽效應爲主導向中介效應爲主導轉變的實質，是邊界對各國經濟聯系和經濟交流阻碍作用的降低和中介作用的增强。邊界效應轉化的根本動力來自于經濟全球化和區域集團化，它使世界各國、各地區之間經濟聯系日益緊密、國際專業化生産日益深化、各層次經濟行爲体的經濟行爲更具國際化。新古典貿易理論從自由貿易的角度，主張開放邊界有利于貿易參与國，發揮各自的比較优勢，帶來經濟福利的增長；經濟一体化理論從生産要素流動的角度，主張開放邊界有利于生産要素的自由流動，提高有限資源配置效率和生産效率。從這个意義上說，中韓兩國环黃海區域經濟合作，將把兩國的邊界屏蔽效應轉化爲中介效應以提高兩國的經濟福利。

2．有利于東北亞區域經濟一体化

東北亞經濟合作對內來講，通過合作充分發揮各自的比較优勢，促進本地區各國和各

地區的經濟增長，達到共贏的目的；對外來講，通過合作可以提高東北亞地區的整体競爭力，促進區域經濟一体化的早日實現。但是，由于歷史文化渊源的差异，以及戰后國際政治、經濟關系的影響，東北亞區域經濟合作嚴重制約了東北亞區域經濟一体化的進程。東北亞各國的政治、經濟环境的差別，以及區域經濟合作存在的多重矛盾，都不可避免地使區域內各國政府的對外經濟貿易戰略步調難以達到一致，而环黃海區域經濟合作，則能够有效克服區域經濟合作中存在的多重矛盾，因此，环黃海區域經濟合作，將承担東北亞地區經濟一体化的“推進器”的角色。

3．有利于环黃海區域各國地方經濟的發展。

环黃海經濟區域包括日本的九州地區、中國的東北、華北地區，以及韓國的沿黃海地區。這些地區的港口城市相互鄰近，具有交通便捷、生産要素互補等開展經濟合作的地緣优勢。而且，在經濟規模、科技水平、腹地狀况等方面，都具有對現有經濟結构進行調整的广闊空間。中日韓三國在經濟結构的地理空間調整過程中，不同程度地將經濟發展的重点移向了环黃海地區，黃海沿岸的主要城市也大都調整了國際化發展戰略，制定出了發展國際經濟文化交流的長遠規划。促進环黃海區域經濟合作，利用地緣优勢促進資金流動和技術轉移，有利于振興本地經濟，實現區域經濟的共同繁榮。

三、环黃海區域經濟合作中的中韓經濟合作

1．合作的前提。中國和韓國是地理接近、文化相近、一衣帶水的鄰邦，自古以來兩國人民友好往來，經濟貿易往來有着悠久的歷史，特別是兩國的正式建交，促使兩國經濟交流日益密切，貿易規模逐年擴大，這爲兩國环黃海區域經濟合作提供了良好的宏觀合作环境。中韓兩國同爲東北亞地區的主要國家，具有很强的經濟互補性，特別是近几年中國經濟的高速持續的發展，提升了中韓兩國經貿關系的水平。2007年韓國是中國第三大貿易伙伴國(5.7%)、第六大出口市場(4.6%)和第四大進口來源地(10.9%)，另据韓方統計，中國繼續保持韓國第一大貿易伙伴國地位。而且，以中日韓三國环黃海地區的友好城市爲基础成立的區域經濟組織－－東亞經濟交流推進机构，也爲中韓兩國环黃海區域經濟合作提供了交流的平台。該机构目前包括中日韓三國十个會員城市，其宗旨是促進成員城市之間的經濟交流与合作，形成环黃海區域經濟圈。如果中韓兩國以會員城市爲依托，向內外延伸經濟波及效果，那么兩國的环黃海區域經濟發展前景广闊。還有，中韓兩國政府都非常重視环黃海區域的開發和開放，這一地區在國內區域經濟發展中具有重要的戰略地位，這也是中韓兩國环黃海區域經濟合作中，不可多得的有利條件。

2．合作的內容。中韓兩國在环黃海周圍擁有优良的城市和港口交通設施，這爲發展

區域經濟合作提供了良好的硬件設施，例如北京、漢城等特大型世界性中心城市，以及天津、大連、青島、仁川、釜山、等重要港口城市，這些港口城市工業和商品經濟發達，海陸空交通便利，人口密集，基础設施條件优良，最适合成爲開展區域經濟合作的中心城市。這些城市率先利用中國的經濟開發區、保稅區，韓國的經濟自由區，逐步將海港、空港等聯合起來，促進城市間投資和貿易的發展，包括産業、环境、旅游、物流、教育等多領域的广泛合作，積极培育本地區的經濟中心城市，通過中心城市的輻射擴張和對外開放能力，帶動該地區經濟合作的快速發展。

3．合作的方式。中韓兩國的环黃海區域經濟合作，与一般次區域經濟合作一樣，需要循序漸進的過程和階段，在經濟合作中，根据不同階段和深度，以及合作的內容不同，將會采取不同的合作方式。一般而言，次區域經濟合作從低級階段合作向高級階段合作發展，包括建立銷售市場關系、建立服務關系、建立生産供應關系、建立控制關系等。這些不同階段的合作方式，在环黃海區域經濟合作中，又体現在産業對接和産業梯次轉移過程中。

産業對接是産業价值鏈的各个环節相互銜接与整合，産業轉移方可借此調整産業結构，産業承接方可借此加快産業結构升級和經濟發展，轉移方与承接方通過産業對接，實現資源的优化配置与整合，實現利益最大化。國際産業對接的主要途徑，体現爲商品貿易、加工貿易、技術貿易、服務貿易、項目外包等形式，國際工程承包和勞務合作也是世界産業對接的重要形式。中國的大部分産業集聚在沿海區域，大多數非自然資源型産業也集聚在東部、沿海的广東、上海、浙江、山東和江蘇等地。甘蔗、家具，游戲設備、通訊医療器具、飲料等産業集聚在广東；文化産品、辦公設備、化學纖維、鐘表則集聚于上海；木材、絲綢則又集中在浙江；其它竹木、手工藝品則集聚在山東；化纖産品和其它儀器、測量儀、紡織品則集聚在江蘇。在中韓産業對接過程中，應全面分析双邊的産業對接可行性与可操作性。

産業梯次轉移過程，存在着兩种産業分工体系，卽垂直分工体系和水平分工体系。在垂直分工体系下，發達國家生産幷出口深加工工業産品，發展中國家生産幷出口農副産品和初加工工業産品，由于直接投資的迅速增加，受資國加快産業結构升級和重化工業的轉移，幷成爲跨國公司的出口加工組裝基地。在水平分工体系下，發達國家和發展中國家都發展某一産業，但各側重于生産工序的不同环節，發達國家致力于研究開發技術密集性生産工序，出口中間産品，進口制成品，而發展中國家側重于加工組裝的勞動密集型生産工序，進口中間産品，出口制成品，在這种分工形式下，會發生利益分配不均衡。中國的环黃海地區是中國較爲發達的地區，山東半島、遼東半島、京津冀是中國北方經濟最活躍的地區，處于東北、西北、華北的接合部，遼宁老工業基地的改造、山東半島制造業基地的崛起和北京中關村、天津濱海新區、南部的上海与江蘇又是長三角地區的主要城市，尤其是上海在長三角地區經濟發展中具有核心地位，因此，中國的环黃

海地區是新一輪的投資熱点。中韓兩國在环黃海經濟合作中，將有垂直分工和水平分工并存的現象，在合作過程中兩國都要權衡短期和長期的利益關系，全面衡量資源禀賦和准确定位比較优勢，在參与國際分工時選擇能够發揮比較优勢，將來能够形成競爭优勢的産業合作方式。

四、环黃海區域經濟合作的建議

环黃海地區的經濟合作体，是基于充分發揮地緣优勢，提升环黃海地區經濟發展水平。但是，這一地區還有客觀存在的障碍，例如，地區安全以及和平环境問題，如南北統一問題；歷史遺留問題，如日本對侵略歷史的認識問題、三國之間存在的一些領土、領海主權問題、中日之間關于釣魚島問題、日韓之間關于日本所謂竹島(韓國称獨島)的歸屬問題、中韓之間關于領海線和200海里所屬經濟區問題；日美政治軍事同盟。這些領土、領海歸屬和政治問題，成爲三國合作的障碍。還有，民族文化心理的阻碍作用，如中日韓三國雖同屬漢文化圈，但是，漢族、大和民族、朝鮮民族，在語言系屬、民族性格、生活習俗、道德倫理、价值取向、行爲准則、思維方式、文化色彩上都有明顯的區別，這些反映在經濟合作上就表現爲缺乏向心力和融合性。因此，爲了加快环黃海區域經濟合作，需要努力克服障碍積极創造合作的有利环境，可以考慮從以下几方面做出努力。

1．創造有利的宏觀合作环境。环黃海區域經濟合作，需要妥善解决好阻碍合作的歷史遺留問題，同時，要符合國内區域經濟發展的大政方針。因此，环黃海區域經濟合作，雖然合作本身不是以國家爲主体，但是，必須要有中央政府的支持和協助，才能順利進行。宏觀合作环境包括基础設施等硬件环境，以及政治、社會、文化、政策等軟件环境。其中，穩定的政治社會环境、政策环境，如中央适当給予地方政府及民間机构參与國際合作方面更多的權利、以合作爲基础的文化交流等是环黃海區域經濟合作的重要前提。

2．保証合作双方的信息對称。环黃海區域經濟合作中，地方自治團体、民間組織和企業起着主渠道的作用，如果沒有對合作方的充分認識和理解，很難找到利益的平衡点。知彼知己百戰不殆，合作双方信息對称能够形成對自己和他人經濟行爲的可以合理把握的預期。如果合作双方信息不對称，例如合作双方在文化、語言和習俗等方面存在較大差异，它會降低双方的信任程度，以至于不能形成對經濟合作的合理預期，但是，如果對合作方有充分的理解和認識，就能提高信任程度，合作才得以繼續和深入下去。信息不對称會導致交易成本的上升，甚至會帶來合作的失敗，所以，在合作中信息對称起着至關重要的作用。

3．充分發揮企業的能動作用。跨邊界次區域經濟合作的行爲主体包括政府、企業、

非正式組織甚至邊境區居民等多种類型。其中，企業作爲經濟活動的直接承担者，无疑是次區域經濟合作中最重要、最活躍的推動力量。在企業間合作關系中，各个企業爲了共同的利益和目標，相互合作，共担風險，但各个企業是獨立的，仍保持着自己的經營自主權，因此，這种合作關系最根本的特征在于它的“競爭性与合作性”。合作關系的成功公式不是交換(以物易物)，而是合作共同創造新价值，合作各方應毫不吝惜地貢獻自己的獨特技能。而且，跨邊界的經濟交往的風險和不确定性均比一國內部經濟交往大，因此，企業間應建立网絡，通過相互學習与經常性的交流与溝通，建立彼此間信息傳輸渠道，使企業在趨向充分信息條件下進行合作。

4．發揮地方政府和民間組織的作用。次區域經濟合作的內容比較广泛，比如邊境双方个別部門或生産要素方面的合作，這些領域的合作需要双方保持經常性的聯系，最終往往需要双方各級政府的全面合作。在國內，地方政府通過游說中央政府來獲得更多的資金和政策支持，力爭獲取更多的地方管理的自主權利；在次區域經濟合作中，通過地方政府間的協議來協調各种跨邊界項目的實施。還有，企業間的聯盟、行業協會、当地的文化和教育等方面的民間組織，往往是跨邊界的网絡建設的不可取少的力量，特別是在正式的法律框架較難實現的條件下，民間非正式的聯系与協調就起着非常重要的作用。

환황해 지역경제협력: 중국의 관점

리위쩐(李玉珍:연변대학교)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지역 사이의 경제, 문화 등 영역의 연계가 전례 없이 긴밀해졌다. 동북아지역에 내재한 경제발전의 변화는 지역경제통합의 길에 순응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무역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식인 차지역 경제협력이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다.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은 차지역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동북아경제통합의 진척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1.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

(1) 경제세계화 배경이 받쳐주고 있다. 발달한 나라 경제체제의 진일보 되는 자유화와 발전도상국들의 대외개방 정책의 영향은 세계 각국 경제체제의 동일성을 추진하며 경제세계화 발전의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해 주고 있다. 실천이 증명하는바 개방형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접점을 실현하고 국내 경제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 과정 중에서 국제투자, 기술이동 및 기업생산과정의 세계적인 배치, 정보기술의 발전 등 요인은 경제세계화 발전에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세계의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응용 역시 상품, 정보의 세계적인 이동에 기술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

(2) 차지역 경제협력형식은 우세하다. 차지역 경제협력은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하에서 발전한 새로운 형식의 국가 간 경제협력이며 주로 인접된 국가 사이의 변경선 양측 변경지역의 경제협력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변

경지역의 지역우위와 생산요소의 호상 보완관계 특점을 이용하고 잠재된 자원우위를 경제우위로 전환하여 변경지역의 경쟁우위를 높였다. 차지역 경제협력으로 말미암아 변두리 지역이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였고 지구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차지역 경제협력은 지역경제통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主權" 비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낮은 주권 비용에 기초하여 차지역 경제협력 형식은 쉽게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이 지역경제통합에까지 영향을 주는 특점을 갖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는 경제세계화를 추진한다.

(3)중・일・한 삼국은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상호 보완성이 있다. 동북아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바다로 향하는 통로를 갖추고 서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교류가 밀접했으며 문화적으로 융합되어 있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즉 한・중・일 삼국은 자원, 기술, 자본, 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제무대에서의 교섭능력 증대에서 독자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일・한 삼국의 산업구조를 볼 때 일본의 산업구조는 자본과 기술 집약형을 위주로 하며 동시에 지식집약형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도 발전하고 있어 제1층에 속하고, 한국의 산업은 자본 집약형을 위주로 하고 기술 집약형도 일정한 규모를 이루며 산업 구조상에서 제2층에 속하며, 중국은 세계의 중요한 원자재와 장비제조업 기지로서 공업기초가 탄탄한바 특히 최근 몇 년은 산업 구조의 조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3층에 속한다.

중・일・한 삼국은 인접된 도시 사이 경제상에서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이 교차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바 이는 환황해 지역경제발전의 합작 가능성을 제공해 주며,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삼국간의 경제협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의 의의

(1) 변경지역의 폐쇄작용이 중개 효능으로 전화된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주권국가의 영토 분계선으로 볼 수 있다. 국제 법에서 변경 선은 "각 나라 사이의 영토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써 한 나라 영토와 다른 나라 영토 및 국가담당 범위

이외 지역과의 분계선이다."라고 정했다. 국가 범위를 초월한 경제협력의 각도에서 보면 변경 선은 두 경제지역 사이의 분계선을 가리킨다. 변경선 효능이란 변경 선이 변경 선을 넘는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이며 그 본질로부터 출발하면 변경효능은 "변경선의 폐쇄적인 효능"과 "변경선의 중개효능"으로 개괄할 수 있다.

변경선의 폐쇄적인 효능은 변경선이 변경을 넘은 교류와 공간의 상호 작용을 저애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경제학 각도에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거래비용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경제주권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보호하려고 관세를 높이거나 관세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막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변경 선을 넘는 교류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저애하는 현상에 속한다. 변경선의 중개효능이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공간을 중개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교류 방면에서 중개 작용을 들 수 있다. 인류는 본질적으로 경제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는 주로 경제교류공간의 범위를 넓히고 외부로부터 생산요소를 얻고 시장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표현된다. 특히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의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각 나라 사이 경제, 문화, 사회교류가 나날이 빈번해 질수록 변경선의 중개효능이 돋보이게 된다.

차지역 경제협력은 변경선의 폐쇄적인 효능을 변경선의 중개효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변경 선은 차츰 폐쇄적인 효능을 하던 데로부터 중개효능 위주로 전환되는데 그 실질은 각 나라 간의 경제연계와 경제교류의 저애작용이 적어지고 중개 작용이 높아진 결과이다. 변경선 효능 전환의 근본동력은 경제세계화와 지역집단화에서 오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 여러 지역의 경제연계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국제전문화 생산이 심화하고 각층에 속한 나라들의 경제행위가 국제성을 띠게 한다. 새로운 고전무역 이론은 자유무역의 각도에서 변경선을 개방하는 것은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에 유리한바 각자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늘일 수 있다고 한다. 경제통합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이동각도에서 변경 선을 개방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자원배치를 효과적으로 하고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중한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은 양국 변경선의 폐쇄적인 작용을 중개 작용으로 전환하고 경제적인 효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2) 동북아지역경제통합에 유리하다. 동북아경제협력은 대내로 각자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바 각 지역과 나라 사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서로 이익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합작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의 종합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통합의 발 빠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적인 차이 및 전후 국제정치, 경제관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경제 합작은 동북아지역경제통합의 진척을 저애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의 정치, 경제 환경의 차이 및 지역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하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 내 여러 나라 정부의 대외경제무역 전략은 일치되기 어렵다. 그러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은 지역경제 합작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동북아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환황해 지역 각국 지방경제 발전에 유리하다. 환황해 경제지역에는 일본의 큐슈 지역, 중국의 동북과 화북 지역 및 한국의 황해연안 지역이 포함된다. 이런 지역의 항구도시는 인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 등 경제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우세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기술수준, 지역상황 등 방면에서 지금의 경제구조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중・일・한 삼국은 경제구조의 지리적 공간조정 과정 중에 정도 부동하게 경제발전의 중점을 환황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황해연안의 주요도시들도 국제화 발전 전략을 조절하였는바 국제경제문화교류의 장원한 계획을 정하였으며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우세를 이용하여 자금이동과 기술 전이를 촉진하고 본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경제의 공동한 번영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3.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중의 중한 경제협력

(1) 합작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접근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상사한 인접 국가이다. 자고로 두 나라 사람들은 우호적인 내왕을 이어 왔으며 경제무역 내왕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수교관계를 이룬 후부터 두 나라의 경제교류는 더 밀접해 졌으며 무역규모가 나날이 확대되었다. 이는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 좋은 합작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며 중한 양국 또한 모두 동북아지역의 주요한 국가에 속하는바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특히 몇 년래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하여 양국 경제무역 관계 수준이 높아졌다. 2007년 한국은 중국의 제3무역국 (5.7%)로 부상하였고, 제6 수출무역시장 (4.6%), 제4 수입무역시장(10.9%)으로 되었다. 한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일・한 삼국 환황해 지역의 우호적인 도시를 기초로 세워진 지역경제조직-동북아경제교류추진기구는 중한 양국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 교량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중・일・한 삼국의 10개 회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 사이 경제교류와 합작을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환황해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한 양국 회원 도시들에 의탁하여 대내외로 경제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면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발전은 더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한 양국 정부 모두 환황해 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내지역경제발전 중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에 속하여 중한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더 없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합작 내용. 중한 양국은 환황해 주변에 훌륭한 도시와 교통항구 시설이 있는바 이는 지역경제 합작에 좋은 외부적 시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북경, 서울 등 세계적인 중심도시 및 톈진, 다롄, 칭도, 인천, 부산 등 중요 항구도시들을 들 수 있다. 이런 항구도시들은 공업과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해 육공 교통이 편리하며 인구가 밀집되고 기초시설조건이 좋으므로 지역경제협력을 전개하는 핵심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도시들은 중국경제개발구, 보세구역, 한국의 경제자유지역을 이용하여 점차 항구, 공항 등과 연합하여 도시 사이 투자와 무역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환경, 여행, 물류, 교육 등 여러 영역의 합작을 통하여 본 지역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여야 한다. 또 이런 중심도시를 이용하여 대외개방 능력을 확대하고 본 지역 경제협력의 발 빠른 진척을 추진해야 한다.

(3) 합작 방식. 중한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은 기타 차지역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부동한 단계와 심도 및 협력내용이 다름에 따라 부동한 협력방식을 취해야 한다. 보통 차지역 경제협력은 저급 단계로부터 고급단계로 발전하는바 판매시장 관계, 서비스 관계, 생산품 공급관계, 지배성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런 부동한 단계의 협력방식은 환황해 지역경제협력 과정에서 산업대응과 산업의 단계성 전이 중에서도 표현된다.

산업대응은 산업가치의 각 방면이 서로 맞먹거나 통일을 이루며 산업을 전이하는 측이 이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접수하는 측에서는 산업구조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루며, 전이하는 측과 접수측은 산업대응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산업대응의 주요 도경은 상품무역, 가공무역, 기술무역, 서비스무역, 등 형식에서 보인다. 국제공정을 도맡아 하는 것과 노무 합작도 국제산업대응의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의 대부분 산업은 연해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연자원집약형 산업도 동부, 연해의 광둥(广東), 상하이(上海), 쩌

쟝(浙江) 산둥(山東)과 쟝수(江蘇) 등지에 밀집되었다. 가구, 게임설비, 통신 의료기구, 음료 등 산업은 광둥(广東) 지역에 밀접 되었고 문화산업, 사무시설, 화학섬유, 시계제조 등은 주로 상하이 지역에, 목재, 비단 등은 주로 쩌쟝(浙江)에, 기타 참대나무, 수공업품은 산둥(山東)에, 화학섬유제품과 기타 의기, 측량기, 방직 품은 쟝수성(江蘇省)에 밀집되었다. 중한산업대응과정 중 양측의 산업대응가능성 및 합작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의 단계성 전이 과정에는 수직분업체계와 수평분업체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수직분업 체계에서 발달한 나라는 심층가공공산품을 만들고 수출하지만 발전 도상국가들은 농산품과 1차 산업의 가공공산품을 제조, 수출한다. 직접투자의 신속한 발전과 증가로 말미암아 투자를 받는 나라는 산업구조의 승화와 중화공업의 이동을 빨리 실현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수출가공기지로 부상해야 한다. 수평분업 체계에서 발달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특정 산업이 발전했지만 모두 생산순서의 다른 환절에 치중한다. 발달한 국가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발전시켜 중간 산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며 개발도상국들은 노동집약형 산품에 치중하여 중간 산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한다. 이런 분업 하에서 이익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환황해 지역은 국내에서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속하는바 산둥반도(山東半島),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베이징(北京) 톈진(天津)은 중국 북방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동북, 서북, 화북(華北)의 접경지에 있는 랴오닝(遼宁) 노후 공업기지 개조, 산둥반도 제조업기지의 궐기, 베이징, 톈진 빈해신구(濱海新區) , 남부의 상하이와 쟝수성은 장강 삼각주 지역의 주요 도시에 속하는바 환황해 지역경제발전에 유리하다. 특히 상하이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처해 있으므로 중국의 환황해 지역은 새로 주목받을 투자지역에 속한다. 중한 양국은 환황해 경제협력 중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이 병존할 것이며 합작과정에서 양국은 모두 단기적, 장기적인 이익관계를 가늠하면서 자원부존과 비교우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국제 분업에 참여할 때 자신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합작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4.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건의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지역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환황해 지역경제발전 수준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하나로 묶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공통분모가 미약하다. 예를 들면 지역안전 및 평화환경 문제 즉 남북통일문제 등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침략 문제, 중・일・한 삼국 사이 존재하는 영토, 영해주권문제, 중일 사이 조어 도에 관한 문제, 일한 독도문제, 중한 사이 영해선과 200해리에 속하는 경제구역문제, 일미 정치군사동맹 문제 등이다. 이런 영토, 영해귀속과 정치문제는 삼국 합작의 장애로 나선다. 또 민족문화심리상에도 장애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일・한 삼국은 한문화 권에 동시에 속하지만, 한족, 야마도족, 조선민족은 언어, 민족성, 생활습관, 도덕윤리, 가치 취향, 행위준칙, 사유방식, 문화색채 등 방면에서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 시스템, 관습, 법·제도, 인프라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조화를 표출하여 경제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합작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1) 경제협력에 유리한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지역경제발전의 정책방침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황해 지역경제협력 자체는 국가가 주체로 되는 협력이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 중 안정된 사회적 정치적 환경, 정책 환경,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구에 국제합작방면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주어 협력을 기초로 한 문화교류 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는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의 중요한 전제이다.

(2) 협력쌍방의 정보대칭을 보장해야 한다.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과 기업은 중요한 작용을 함으로 만약 협력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없으면 이익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협력하는 쌍방이 정보를 서로 대칭 하여야만 자신과 타인의 경제행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예견할 수 있다. 만약 협력하는 쌍방이 정보를 대칭하지 않은 정황 하에서 문화, 언어, 습관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서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경제협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합작 쌍방이 서로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대칭되지 않으면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정보 대칭은 합작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기업에서 능동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변경을 넘은 차지역 경제협력의 행위 주체는 정부, 기업, 비공식적인 조직 외에 변경지역 주민 등 다

양한 층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은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차지역 경제무역협력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추동 역량이다. 기업사이 협력관계에서 각 기업은 공동한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위험을 감수한다. 하지만, 독립체를 이루는 기업은 자신의 경영자주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경쟁성과 협력성”에 있다. 협력관계의 성공적인 공식은 교환(문물 대 문물 교환)이 아니라 공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측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아낌없이 내놓아야만 협력의 순리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 또 변경을 넘는 교역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자국내부 경제교역에 비해 크므로 기업사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배우고 잦은 교류를 통하여 정보수송 경로를 만듦으로써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한 조건에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4)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이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의 내용은 비교적 광범하다. 예를 들어 변경을 둔 양측은 개별부문 혹은 생산요소 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의 협력은 양측으로 하여금 자주 연계를 취하게 하는바 최종적으로 양측 정부의 전면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더 많은 자금과 정부의 지지를 얻고 지방자치권리를 많이 얻어야 한다. 차기지역 경제협력 중 지방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변경을 넘어선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업사이 연맹, 업종 협회, 문화 및 교육에 관한 민간조직 등은 변경을 넘은 네트워크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역량이다. 특히 정식적인 법률의 틀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차원의 연계와 조절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참고문헌

王鐵崖,「국제법」, 법률출판사, 1995.
陳才,「지역경제학」, 과학출판사, 2001.
儲祥銀等,「국제경제협력원논」, 대외무역교육출파사, 1993.
諾思,「경제사 중의 구조 변천」, 상해삼련서점, 1991.
龐效民, "지역통합의 이론적 개념 및 발전", 지리과학진전,1997(2)
王喜紅, "환황해 지역경제통합의 탐구: 저애요소 및 대책분석", 연태사법학원학보, 2004.6
吳 昊, "중국이 동북아지역협력에서의 작용 및 대응", 동북아논단,2006. 11.
華 民, "경제세계화와 중국의 대외개방", 학술월간, 2007. 7.
李 博, "중국의 삼대 경제권 경제발전 분석", 산업과 과학논단, 2008. 2.
苑雅文, "환황발해 지역 산업 집단의 사화 망 분석",천진사회과학,2007. 2.